

병 상 일 기

교감/ 문 덕 진

나의 병은 6.25동란중 부산 피난 시절에 영양 실조로 임파선이 부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부산의 메리놀병원에서 결핵약을 구해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중국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는 고약을 사용해서 내 목에서 임파선 20여개의 알을 꼬집어 내었다. 목에 있는 큰 상처가 그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결핵균은 폐를 거쳐서 척추로 전이되었다. 서울이 수복된 후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 독일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기브스를 하였다. 그 때 기브스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어머니께서

풀빵 장사를 하셨는데 내 약값으로 지불하고 나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였다.

어느날 등뒤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퍼낸 기억이 나는데 몹시 괴로워서 날뛰는 바람에 기브스가 많이 파손되었다. 그래서 다시 기브스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X-RAY 촬영 결과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의 정성과 많은 교인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했다. (그 때가 7살때였다.)

완치된 후 걸음마를 배웠다. 큰 아버님께서 줄을 매어 걸음마 연습을 시키셨다고 한다. 8살에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지 별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내가 45살까 지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잠도 덜 자고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으며, 남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알고 가능하다면 남의 일을 잘 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하였다.

1971년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였고 73년에 침례를 받았다. 당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미국 이민 수속을 혼자 밟았다. 거의 수속이 끝날 무렵 문성여자상업고등학교가 설립되어 미국 이민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곳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74년도에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아이들은 총명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고 인복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

1986년 문일여자 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그 때부터 나는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심할 때는 화장실에 앉기가 힘들었다. 초창기 인문계 고등

학교 교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무척 힘들었다. 특히 경험은 적은 교사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몹시 아파서 잠시 쉬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성여상 정은선 선생님의 소개로 기독교병원 신경외과 이용성 과장님을 찾아 갔다. 원장님인 강석봉 선생님께서도 이용석박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 주셨다. 여러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검사 결과 척추중에서 T5~T6가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왼쪽 다리는 별 이상이 없었다. 다음해 이미션 선생의 소개로 한남동에 있는 한의원에서 약1년간 한약을 지어 먹었으나 진전이 없었다.

1990년부터 왼쪽 다리까지 마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발바닥이 몹시 아팠는데 마치 가시가 몇 개 박힌 채 걷는 아픔이었고 엄지와 새끼발가락이 완전히 감각을 잃었다. 아는 의사 여러분에게 나의 병을 알렸고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길병원에 MRI촬영 기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 이준희씨

의 도움으로 신경외과에서 진찰을 받고 MRI촬영도 하였다. 그 때가 1991년 7월 12일이었는데 검사 결과 척추 디스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7월 16일 수술할 것을 결정하였다. 13일 퇴근 길에 우연히 미림 사진관 김수봉 사장을 만났길래 수술 이야기를 하였더니 송의동 계종수 박사를 소개하여 7월 15일에 만났다. 이 때까지 모든 사진을 종합하여 디스크가 아니고 T5~T6가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영등포 소재 고려 대학 부속 구로병원 원장 이종찬 박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날 오후 이종찬 박사를 만나 진료했는데 결과는 T5~T6가 원인이었다. 그래서 길병원에서의 수술을 포기하였다. 그 때부터 미림 김사장님과 천주교 산곡교회 서재송 회장님의 도움으로 미국 미네소타(Minnesota) 주립대학 부속병원에 수술을 받았다. 약 35년전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Father Been (최분도 신부님)의 주선과 신부님의 제수 바바라(간호원으로 정년퇴임)의 소개로 MINNESOTA주립대학 ENSORE TRANSFELDT, M. D의 초청

장을 받았다. 1991년 9월 17일 홀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 이미 양쪽 다리에 다 마비 증상이 있었고 왼쪽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내 나이 44세. 중학교때부터 이야기하던 45살의 생명이 생각났다. 그 즈음 난 부모님의 산소 자리를 찾아 헤매었는데 막연히 내 자리도 생각한 것 같다. 구입비 명목으로 약 7,500만원이 예금되어 있었으나 국가 정책상 도저히 땅을 살 수 없었다. 나는 막연하게나마 죽음을 준비하며 내 컴퓨터에 나의 병력과 모든 신상조사 내용 그리고 통장 번호와 예금액등을 기록하여 아내에게 알려 주었다. 1991년 9월 16일 월요일 직원 회의때 교장 선생님께서 나의 수술을 위한 출국을 모든 선생님들에게 발표하셨고 나에게 인사하라고 마이크를 넘겨 주셨다. 한국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을 미국에 가서 고칠 수 있을까하는 의문 때문에 울음이 나와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인사로 대신하였다.

부모님과 가족들. 교장 선생님께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간다고 하였지

만 수술받다가 죽는 내 모습을 보여 주기 싫어서 끝까지 혼자 간다고 하였다.

그곳에는 서재송 회장님의 세째 아들인 서전석씨가 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와 함께 해 주었다. 최분도 신부님의 부탁으로 하나 엄마와 간호사 에릭 엄마(통역)를 소개받았다. (사진1)

처음에 미네소타 주립대학 부속 병원에서 TRANSFELDT박사의 진찰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사진1〉



(사진설명: 오른쪽이 하나엄마, 왼쪽이 에릭엄마)

TRANSFELDT박사는 세계적인 척추 전문 의사였다. 그의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친절하고 다정하며 동정심에 가득찬 눈초리였다. 진찰 결과 T5~T6가 원인이었다.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잡으려 하였지만 그 병원의 수술일정이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개인 병원인 ABOUTT NORTHWESTERN HOSPITAL로 옮겨 10월 3일 수술받기로 하였다. 수술전날 약 6시간에 걸쳐서 주의 사항과 수술 과정 및 여러가지 자료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급된 소독비누로 목욕을 한 후 수술 전 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캐나다의 이초자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로 약 5분간 기도하였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다. 얼핏 꿈을 꾸었는데 무엇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흰 눈과 같은 것을 뿌리면서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소리쳤다. 나를 위해서 한번더 축복을 내려 주십사

고. 하느님께서 곧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2번이나 더 축복을 해 주셨다.

1991년 10월 3일 아침 4시에 서전석씨, 하나 엄마, 에릭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다.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치고 준비실에서 에릭 엄마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 외에도 20여명의 환자들이 있었다. 7시 30분 수술실로 가기 전 잠자는 주사를 맞았다. 에릭 엄마에게 수술 잘 받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끝까지 잘 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수술실로 가면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문선생님, 문선생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 보니 서전석씨, 에릭 엄마, 하나 엄마, 최규선씨가 지켜 보고 있는 회복실이었다. 18시간 30분이 지나 있었다. 얼굴과 팔 다리가 모두 부어 있었다.

“문선생님 다리 좀 들어 봐요”하는 소리에 다리를 들었다. 발가락도 움직여 보았다. 정상적으로 움직여졌다. 수술은 대성공이었다. 매시간마다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재었고 발의 감각도 조사했다. 어깨, 가슴, 뒷등에 통증이 매우 심했

다. 목이 타서 물을 달라고 외쳤을 때 간호사가 얼음 2알씩 입에 넣어 주었다. 그것은 내 생애의 가장 맛있는 과자였다. 간호사와 말은 안 통했지만 나의 표정과 서투른 발음에도 모든 것을 잘 해 주었다.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다음날 11시 병실로 내려 왔다. STATIO 22, STAFF였다. 나중 에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수술 시작한 시간이 한국시간으로 10월 3일 밤 09:30이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와 우리 가족, 동생, 가족과 교인들이 모여서 밤 9시부터 열심히 기도하였다. 6~8시간 이면 끝난다고 하던수술이 10월 4일 새벽 5시 30분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 몹시 걱정하였다. 아침 8시 30분에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왔다. 어머니는 연락이 늦자 수술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무척 애를 태우셨다 한다. 수술은 12시간 30분이 걸렸고 꿰매는데 2시간 회복시간까지 18시간 30분이 걸린 것이다. 수술한 과정을 보면, 왼쪽 갈비대 하나를 뽑아내고 오른쪽 엉덩이 뼈를 잘라 내었다. 그것들을 가지고 척추 T5~T6의 잘못

된 것과 좁아진 구멍을 넓히는 대 수술이었다. 갈비대를 떼어 내려고 가슴을 열었을 때 어렸을 적에 앓았던 부분의 정맥이 엉망으로 뒤엎혀 있어 이 핏줄들을 제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정치 않았던 4~5시간이 소요되었다.

내가 쓰는 병실은 STATION22, STAFF2205 Bed A로서 2인이 쓰는 곳이다. 간호원실 바로 옆방이고 시설은 거의 완벽하였다. 다른 환자라면 회복실에서 하루 더 있어야 하는데 병원의 배려로 값이싼 입원실로 내려온 것이다. 내 목과 양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배에는 불순물을 배출시키는 호스가 꽂혀 있었다. 소변도 인공적으로 배출시켰다. 머리 위에서는 진통제가 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자동이었다. 하루 한 번씩 피검사를 하였고 X-RAY 기계가 직접 와서 촬영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 6시 30분에 신경과 의사 BANK와 레지던트 WALKER가 다녀갔고 9시쯤 내과 의사 MACINTOSH가 다녀갔다. 잊지 못할 일은 처음 그가 나를 진찰할 때 첫마디가 "Are you hungry?"

였다. 재미있게 웃기려 했다. 그러나 통증은 계속되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내 귀가 점차 열려 의사와 간호원의 말 뜻을 알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였다.

입원실에서의 첫날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다. 고통이 심해 한잠도 못 잤다. 간호원이 눕혀 놓은 대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통통 부은 오른쪽 팔 뿐이었다. 가끔 간호원을 부르면 와서 누운 자세를 바꿔 주었다. 내 자세를 바꾸는 데는 항상 2명의 간호원이 필요했다.

다음날부터는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아주 맛있었다. 기운이 없어서 내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는데 간호원은 몇번씩 옷을 갈아 입혀 주었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 팔 등을 닦아 주었다. 그날 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서전석씨에게 옆에서 자 달라고 부탁하였다. 땀으로 침대 시트가 젖었기 때문에 교환하기 위해서 일어나 앉게 되었는데 무척 어지러웠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6까지 떨어져 있었다. 수혈을 받았는데 도중에 쇼크가 일어났다. 정

확한 대화가 통하지 않아 간호원이 찢절매었고 서전석씨도 의학용어를 몰라 당황하였다. 다행히 곧 의사가 왔고 약 30분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다음날 낮에 다시 수혈하였는데 어지러운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날밤엔 나대성씨가 함께 자 주었다. 담당 간호원은 LORI LONG이었다. 세 아이의 엄마인데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 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 답답했던지 자신이 한국 말을 배워야겠다고 했다. 그날밤에 첫변을 보았는데 LORI LONG은 great, great하면서 기뻐하였다. 첫 대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밤 11시까지 근무했는데 병원 주소와 자기 주소를 써 주면서 8일 뒤에 다시 근무하지만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그녀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꼈으나 퇴원할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C.T촬영을 했다. 약30분간 진행되었는데 10분전에 앞으로 10분 남았다고 스피커를 통해서 알려 주었다. 한국에서 C.T촬영을 할 때 2시간이나 걸렸지만 아무런 안내가 없어 답답하였던 것

을 생각하면 대조적이었다. 다음날 신경과 의사 BANK씨가 C.T촬영 결과 수술이 대성공이라고 축하의 악수를 해 주었다. 그리고 등의 상처를 보고는 아주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가 빨리 낫는다고 말하였다. 수술 5일후부터는 음식도 나오고 샤워도 시켜 주었다.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휠체어도 탈 수 있었다. 간호원에게 부탁하여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밖에 나왔다. 내가 처음 왔을 때 푸르던 나뭇잎들이 거의 져 있었다.

어머니께서 오실 때 까지도 나는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니께서 오신 후에도 통증은 여전했으나 몇일 후부터 대소변을 혼자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께서 갖다 준 아내와 아이들, 선생님들과 교인들의 편지를 곁에 두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읽고 또 읽었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병원으로 하나 엄마와 에릭 엄마가 음식을 해다 주었다. 이 곳 안식일 교회의 조근호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 주었고 과일도 사다 주었다. 또한 최규선씨 장인, 장모, 부인도 와 주었다.

퇴원하기 전날 밤(14일) 샤워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간호원실 복도에 있는 세계 지도 위에 한국 서울에 빨간 핀을 꽂았다. 그것은 멀리서 온 환자들의 표시였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사2)

다음날 퇴원하여 최규선씨가 운전

하는 린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타고 약40분간 달려서 LAKE-BILLE에 있는 JUBILLE APT에 도착하였다. 그전날 하나 엄마와 에릭 엄마가 집에 있는 침대를 가져다가 안방에 놓아 주었고 집안 정리도 해 주었다.

10월 17일 오전 9시 퇴원 후 처음으로 신경과 의사 BANK를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X-RAY를 보았는데 T5~T6는 잘 볼 수 없었으나 목부터 척추 중간까지 2줄의 철사로 지지대를 만들어 댄 것을 알 수 있었다.

10월 21일 아내가 왔다. 그 때는 혼자 침대에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29일 TRANSFELDT박사의 진찰을 받았는데 회복이 매우 빠르다고 축하의 악수를 해 주었다. 진찰실을 나와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보자 비서가 TRANSFELDT씨와 상의 하더니 박사가 다시 우리를 진찰실로 불렀다. 그리고 미국의 수술비가 대단히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보험도 없는데 누가 치료비를 낼 것 인지를 물었다. 에릭 엄마가 본인

〈사진2〉



(사진설명:station 22 staff 간호원하고)

과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등 아는 사람들이 모아서 내게 될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TRANSFELDT 박사는 잠시 나갔다 오더니 수술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조그만 선물만 보내 달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라고 했다. 참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눈짓으로 대답했다. 그는 다음에 만나러 올 때에는 병원에서 청구한 모든 청구서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비싸게 청구했는지 싸게 했는지 알아 보려 한다고 했다. (사진3)

10월 30일 10시에 내과 의사 MACINTOSH씨를 만났다. 에릭 엄마가 어제의 일을 말했더니 자기도 혈압약 1개월분을 무료로 주면서 오늘 진찰비는 안 받겠다고 했다.

글을 마치면서 많은 점을 느꼈지만 특히 김수봉 사장님의 소개로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며, 그것은 하느님이 철저히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끝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진심으로 고마움의 표시로 대신하려 한다. 또한 마음속으로 나의 쾌유를 빌어 주신 더욱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김수봉 미림사진관 사장님, 서재송 회장님, 최분도 신부님, 바바라, TRANSFELDT박사, BANK박사, MACINTOSH박사, KATHY LOVE, WALKER, 서전석씨 가족, 에릭 엄마, 하나 엄마가족, 최규선씨 가족, LORI LONG간호원, 조근호 목사님 가족, 기타 안식일 교인들 Joseph, peter, 전제준, 제임스, 매기, 끝.

※ 치료 과정에서 느꼈던 한국 병원과 미국 병원의 차이점

1.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제 의료 보험 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미국에서의 의료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

여행자나 방문객 또는 사업상 외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데, 그들이 병이 났을 때 대처 방안 연구가 시급하다.

2. 한국에서는 응급을 요하는 환자라도 먼저 돈을 지불해야만 치료나 술이 가능한데, 미국은 먼저 입원시키고 수술이 끝난 다음 비보험자인 경우 가정으로 청구하고, 보험자인 경우 전액 보험에서 부담한다.
3. 미국은 전속 간호원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제로 근무한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므로 능률적이며 보람도 크다 한다.

〈사진3〉



4. 한국에서는 수술은 받고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하지만 미국은 Home care제도가 있어서 간호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5. 한국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많은 진찰실에서 레지던트가 먼저 진찰한 다음 의사가 와서 다시 진찰하고 상담한다. 진찰 및 상담 시간도 한국에 비해 상당히 길다. (대개 2시간 정도)
6. 한국은 퇴원할 때 돈을 한꺼번에 청구하지만 미국은 각 부서별로 의사마다 자세한 명세서를 가정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文苑

(사진설명:
수술의사
TRANSFELDT
와 함께)